# “종단 예산 1000억대 확충 자신”

## 2번 수불 스님

### 종책기조

**수행 · 전법 전념 시스템 구축**
**교구 현장 중심으로 대전환**
**공명한 호법 집행 · 신뢰 회복**
**1000만 불자 회복 프로젝트**
**세계 인류 선도할 대안 마련**

### 눈여겨볼 종책과제

**수행**
- 선지식 중심의 수행위원회 구성
- 안거 공부 전통 범국민운동 추진
- 선 명상 한류센터 구축

**행정**
- 교구자치제 완전 보장
-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 추진
- 중앙종무기관 소임 25% 비구니 인선
- 법인 자율성 위한 법인법 개정

**복지**
- 펀드 통한 승가복지기금 500억원 모연
- 승려 노후 수행비 지급 대책
- 승가인재센터(가칭) 설립 운영

**전법**
- 수행 · 전법 위한 직영사찰 주지 공모
- 조계종 선(禪)포교사 양성
- 플랫폼 방식 모바일 콘텐츠 개발
- 불교만화 · 게임 등 젊은 콘텐츠 공모


2012년 11월 미국 스미스대에서 혜민 스님과 강연에 나선 수불 스님.

## 승려복지기금 500억 모연… “육화정신 화합을”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기호2번 수불 스님이 현 중앙종무기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1000억 원대 재정 확충을 다짐했다.

수불 스님은 9월 27일 서울 안국선원서 총무원장 선거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종책을 발표하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인식과 폐습을 과감히 혁신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불 스님은 수행자들이 수행과 전법이라는 본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구본사 중앙분담금 4년 동결을 비롯해 보시 · 모연으로 종단재정 1000억 원대 확충, 펀딩을 통한 승가복지기금 500억 원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무원장이 되면 이를 책임지겠다”고 확신했다.

신뢰받는 종단운영을 위해 수불 스님은 △교구자치제 완전 보장 △비구니 참종권 확대 및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25% 인선 △법인법 개정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교구자치제는 본말사 주지 인사 및 재산 처분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종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선학원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종도 81%의 지지를 받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추진하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제도를 개선해 총무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는 계획도 밝혔다.

출마 이후 종단의 민낯을 더 많이 봤다는 수불 스님은 “현재 종단이 활발발하게 움직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죽음 앞의 적막 같은 고요함을 느낀다. 서로 눈치를 보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종단을 망치는 장애물”이라고 진단한 뒤 “종단관리는 어느 때보다 탁월했지만 한국불교 정체성은 제대로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 불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으려면 방향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시 1천만 불자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 전법과 교육체계를 갖춰 참선프로그램을 종단차원서 보급해 불교 대중화를 이끈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님은 “진정한 가르침이 불교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해도 국민들이 불교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픔은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며 “종교기능이 약화됐다고 할지 몰라도 불교가 역량을 발휘할 환경은 더 좋아졌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으로 불교가 시대의 사명을 다하긴 어렵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안국선원장과 종단 수장을 겸할 시 스님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종단 수장이 되고도 안국선원에 연연해선 안 된다. 걸망을 메면 떠나는 게 중이다. 버릴 줄 모른다면 승려로서 기본 자질이 문제 된다”면서 “오히려 안국선원 신도들이 등 떠밀며 잘하라고 하지 않겠나. 육화정신으로 화합하는 승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내려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수불 스님은 끝으로 “종단이 변화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도 불공과 천도의식, 문화재 관람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한다면 한국사회와 인류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수 없다”며 “70년 전 봉암사 결사를 시작한 선각자 스님들이 옳았다. 우리도 지금 비장한 각오와 절박한 결단을 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윤호섭 기자**

### 후보와의 질의응답

**종단 비정규직 등 내부 노동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무원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도 하는데 있는 사람 잘 관리하고 더 많이 뽑아서 종단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700만 불자 관리하기엔 터무니없지 않나요. 못한다면 종단의 내일이 있겠습니까.

**직영사찰 주지 공모제가 눈에 띄는데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자신의 길을 못 찾는 일이 있는데 종단 내 역할을 찾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총무원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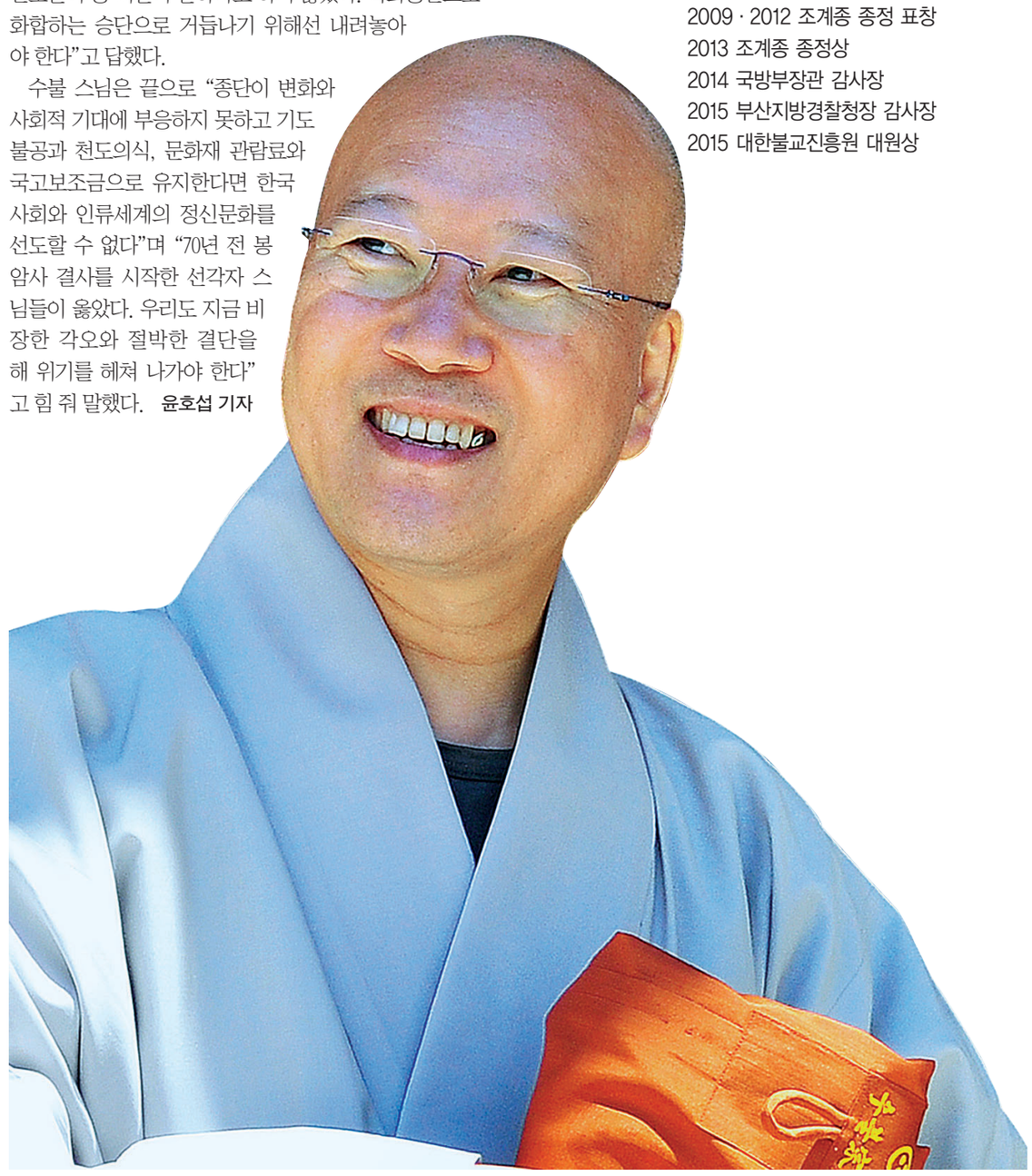
율장에 비춰보면 직선제가 맞다 틀리다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가 급감하고 내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죠. 물론 실험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야 합니다.

### 경력 및 이력

1953 대전 출생
1975 사미계(범어사 지유 스님)
1977 비구계(범어사 고암 스님)
1979~1989 제방선원 수선안거

(사)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신문사장
부산불교연합회장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BTN불교TV 이사
부산불교방송사장
BBS불교방송 이사
불교미래포럼 통섭
안국선원장

2003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4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9 · 2012 조계종 종정 표창
2013 조계종 종정상
2014 국방부장관 감사장
2015 부산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5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채움 · 나눔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곳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더 행복이 충만한 곳

GIVE

복합문화공간
KUmuda(쿠무다)

책과 커피 그리고 감성이 있는 공간
쿠무다는 북콘서트, 전시회,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주지 주석 사부대중 일동

www.daeunsa.ne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1-21 | 051)701-7559